

중·고교생 59.9% “결혼 안 해도 된다”

청소년정책연 ‘청소년 가치관 변화 연구’ 설문 결과 2008년보다 18.3%p 상승… “우리사회 공정” 45.5%

우리나라 청소년 3명 중 2명 가량은 결혼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0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2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3.9%,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6.3%로 나타났다. 2008년 진행된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에

서는 ‘본인이 원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41.6%로, 지난해보다 18.3%p 낮은 수치다.

청소년들이 장래에 희망하는 자녀 수는 평균 1.5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두 자녀(52.8%)를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0명(22.1%), 1명(16.2%), 3명 이상(8.9%)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결혼관 변화, 희망하는 자녀 수 감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젊은 층의 일자리부족, 여성의 경력단절, 자녀 양육부담, 주택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대체로 긍정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45.5%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를 대체로 긍정적인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26.7%)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과반수(54.5%)가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72.6%로 나타났다. 2008년도(45.2%)보다 우리 사회를 인권 존중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과반수(54.5%)는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평가했으며, 10명 중 3명 정도(27.4%)는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로 여기는 등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높게 확인되고 있다. 보다 긍정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청소년정책연구원은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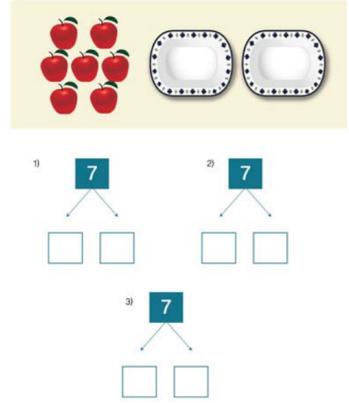
한편 이번 연구를 위해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5740명을 대상으로 인생관, 가족 및 결혼관, 진로 및 직업관, 학교 및 친구관, 사회 및 국가관, 다문화의식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치매예방 주간학습지 **노뜩뜩!** <180>

한라일보·제주도 광역치매센터 공동 기획

문제 1. 광역이는 7개의 사과를 두 개의 접시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오른쪽 접시보다 왼쪽 접시에 사과를 더 적게 담을 수 있도록 나누어보세요.



문제 2. <예시>와 같이 초성으로 쓰여진 문장을 보고 속담을 완성해 보세요.

〈예시〉

바 나 드 바 나 드 흥 기

→ 불난데 부채질 하기

1) 사 로 드 보 드 기 흥 드

2) 기 로 기 나 드 바 흥 드

3) 드 로 드 드 기 바 기 흥 드

4) 오 나 기 기 로 오 흥 드 흥 드

문제 3. 디지털 시계의 시간을 수식에 맞게 계산해 나오는 시간을 표시해 보세요.

1) 03:20 + 17:15 = 00:00

2) 08:32 + 12:58 = 00:00

3) 11:44 + 09:48 = 00:00

4) 08:11 + 09:49 = 00:00

학습지 정답은 13면 한라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생산품 구매로 사회적가치 실천

개발공사-장애인재활협 협약 일자리 창출·자립 지원 협력

제주개발공사가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며 사회적가치 창출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와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협회장 이민숙)는 지난 1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제주시 조천읍 소재 아가급드래에서 도내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적가치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원년으로

선포한 제주개발공사의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통해 도내 발달장애인의 일감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자립 기회 마련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개발공사는 2018년 2억 1900만원, 2019년 3억9700만원, 2020년 5억39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량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판로개척 공동 노력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제공



제주개발공사와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주도협회는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맺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와 자립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과 근로능력 개발 지원 등 도내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력하게 된다.

협회에는 제주지역 직업재활시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총 11개 시설이 가입돼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도

민의 공기업으로서 올해를 ESG 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사회적 책임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적극 이행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산부 지원서비스 한 번에 안내·신청

‘맘편한 임신’ 전국 확대

앞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임신·혈분제 제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정부24(온라인)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우정사업본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지난 19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됐다.

시범 도입을 통해 그간 임산부가 보건소·주민센터 등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임신 지원 서비스들을 정부24(온라인) 또는 보건소·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청소년 산

모), 에너지 바우처, 모자보건수첩 등 5종의 서비스가 추가됐다.

임산부는 전국공통 서비스 14종(통합 신청 9종, 개별 신청·안내 5종)과 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4종)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임산부가 출산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행복출산’ 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양육·아동 수당, 전기료 경감 등 8가지 출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리두기로 멀어진 세상, 신문이 이어줍니다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GS칼텍스 삼남석유(주)
대표이사 장규성·장규방